



30일 광주시 남구 진월지구 물빛 근린공원에서 한 주민이 풀어놓은 오리와 거위들이 노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시 공원 호수에 오리·거위 방생 논란

“질병 우려” VS “보기 좋다”

구청들 처리 ‘골머리’

도시 속 공원의 호수를 떠다니는 ‘오리·거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차이로 광주시 구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최근 진월지구 물빛 근린공원 호수를 떠다니는 오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의 내용은 호수에 떠 있는 오리 6마리와 거위 2마리가 혐오감을 가져오고 악취를 유발하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것.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누군가 호수에 풀어 놓은 오리와 거위가 공원 이곳저곳을 누비며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접수한 남구는 최근 공원에 ‘오리 주인은 하루 빨리 오리를 수거해 주시

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오리 주인을 수소문했다. 공공시설인 근린공원 호수에서 개인이 사유재산인 오리를 키우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리 수거’ 안내문을 본 또 다른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자신을 진월동 모 아파트 입주자라고 밝힌 한 주민은 “물빛 근린공원 산책 도중 우연히 남구청에서 풀어 놓은 ‘오리 수거’ 안내문을 보게 됐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오리를 보며 즐거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데 굳이 수거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서구 역시 우치공원에서 기증받아 풍암생활체육공원 호수에 방생한 거위 9마리와 개인이 풀어 놓은 오리 5마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의 요지는 주로 구청이 호수에 풀

어 놓은 거위와 개인이 방생한 오리의 배설물이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산책로 곳곳에 널려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감염될 것 같은 걱정이 든다는 것이다.

남구와 서구는 오리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일단 지켜보되 문제가 계속된다면 오리의 수를 줄일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주말 물빛 근린공원을 떠다니는 오리의 주인과 연락이 닿았다”며 “오리 주인이 사유 목적이 아닌 주민 불거리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당분간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구 관계자 역시 “오리 배설물이 방치된 산책로 주변에 대한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오리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7분
해질 18시 17분
달돋이 23시 47분
달질 13시 38분

겉옷 챙기세요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겠다.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의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	주의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	주의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4/24	16/21	12/21	11/23	12/24	13/24	

광주북구장학회 장학 사업

기금 조성 부진으로 차질

목표액 40% 수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광주북구장학회의 장학 사업이 기금 조성부진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달 30일 북구에 따르면 2007년 10월초 장학회를 설립한 구는 2011년

12월 말까지 구비 30억·기탁금 50억 등 모두 80억원의 기금 마련을 목표로 (재)북구장학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 기금은 구비 출연 15억원·기탁금 17억원 등 모두 32억원이다. 이는 애초 목표한 기금 조성금액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미출연금 15억원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인과 출향 인사·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율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이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면서 각종 장학 사업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북구 재정 여건상 북구장학회에 기금 출연을 계획대로 못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출연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조성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근로자 임금 6억 체불 업주 구속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근로자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선박 블록 제조업체 대표 박모(6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박씨는 1999년 9월부터 목포시 연산동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운영

하면서 모 조선소로부터 하도급 대금 18억을 받고도 근로자 112명의 임금 6억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의 기성금을 가압류하자 도급계약 날짜를 허위로 소급 작성해 기성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하나SK카드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카드 외식 50% 할인 / 영수증 연간 12회 무료 / 주유, 마트, 배달 2천원 할인 / 학원, 배달, 만원 할인